

한국타이어, 안전 · 보건점검 강화

직원들 잇따른 돌연사와 관련 ... 파견 전문의 매주 2차례 사원 진료

직원들이 잇따라 돌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타이어는 9월4일 정부 공인기관 및 산업의학 전문의료기관과 함께 대전공장, 기타 사업장에서 노사 자율 안전보건점검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보건분야 전반에 관한 기술지원은 산업안전공단, 직무 스트레스 및 뇌심혈관관련 질환에 대한 점검은 을지대병원의 자문을 받기로 했다.

또 현재 각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과는 별도로 사외 대학병원에서 파견된 분야별 전문의를 통해 매주 2차례 사원 진료를 병행할 계획이며, 특히 정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소견이 나온 사원들에게는 심혈관계 전문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진료토록 하고 일정기간분의 혈압약을 회사가 지급하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안전보건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유해요인을 발굴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조사해 결과에 따라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타이어 대전 및 충남 금산공장, 연구소에서는 최근 1년 동안 7명이 집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숨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9/05>